



박은정 전 기초교육원장과
서울대학교의 기초교양교육을 논하다

이번 호 <열린지성>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신 박은정 선생님을 찾아보였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대학교의 교양 교육을 총괄하셨던 선생님을 모시고 최근 교양 교육에서 '바뀐 것과 바뀔 것, 바뀌지 않은 것' 등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올 7월 말까지 기초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셨는데, 원장으로서 행하신 첫 업무와 마지막으로 처리하신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첫 업무는 기초교육 4개년 발전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초교육원 원장으로 부임했을 2006년 여름부터 시작해 11월 말에 완성했는데, 열 한분의 주임 교수님과 행정팀의 지원으로 계획을 짤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장무 총장님이 새로 취임해 학교 전체 차원에서 2025년까지의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을 때인데, 기초교육원 뿐만 아니라 각 기관마다 장기 발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중·단기 계획을 만들고 있었지요. 이 계획이 제가 취임하면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만들어야겠다고 개인적으로 다짐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지난 2년간 업무는 이 계획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일이었죠. 마지막 업무 역시 4개년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가칭 '자유 전공학부'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기초 학문에 대한 깊은 천착을 토대로 전공 융합·학제적인 공부를 학부부터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새로운 학부를 설치하는 것은 입학관리본부나 교무처 소관인 것 같지만, 자유전공학부의 도입 이어나 교육 이념, 교과 과정 등 내용적인 측면은 기초교육원의 소관입니다. 4년간 이것을 연구해왔고 6개월 전부터는 외국의 7~8개 대학을 직접 가보면서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고 이제 시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일각에서는 법학·의학·치학 전문대학원 예비과정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취지는 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2. 임기 중 기초교육원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는 사안을 소개해 주세요.

서울대 같은 큰 교육기관의 책임자가 2년간 바뀐다고 그리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역점을 둔 것은 '교육'의 문제를 수혜자인 학생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제도적인 도입이나 교양 교과 과정 개편 등이 시도되었지요.

3.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많다면 많겠지만 글썽,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장무 총장님께서 취임 후 대내외에 기초 교육을 일관되게 강조해 오셨고, 선생님들도 총론적으로 공감하고 있었기에 여건 자체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교양 교육의 토대는 여전히 빈약합니다. 대외적으로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다보니 대부분의 전임 교수님들은 연구에 집중하고, 30%만 교양을 담당합니다.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교양 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시고는 있지만 필수적인 부분에서 전임 교수가 아니라 시간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양 교육의 약한 토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교양 교과목 수는 전체 교과목 수의 20%이지만 강좌 수 자체는 복수가 많아서 40%인만큼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교과목을 선택할 때 보이는 학생들의 태도입니다. 학생들을 전적으로 탓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수업을 자신의 능력을 쌓는 계기와 발판으로 삼지 않고 경쟁을 위한 수단, 쉽게 학점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삼는 경향이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적표를 보면 수강 과목들을 통해 그 학생의 일관된 관심사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외국어 중급을 마친 학생이 해당 외국어 초급 수업을 듣는 문제도 발생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2년은 짧은 기간입니다. 특히 교과 과정 등은 새로운 제도의 점점 기간이 길고 학기나 학년이 새로 시작될 때 바뀌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매듭을 못 지은 느낌이에요.

4. 한 번 더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2년의 임기 중에 가장 아쉬운 일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교양 교육에 관한 전자 우편을 받는 일이 별로 없지요? 교수보다는 학생 쪽이 주도권을 쥐는 새로운 수업들이 많이 도입되었는데도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학생 자율연구프로그램이나 2학기부터 영어로 진행되는 동경대 교양학부와의 국제 화상 강의 등은 도입 초창기라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원장 이름으로 전 학부생에게 메일을 보낼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메일을 자주 발송하던데 좋은 선례인 듯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일은 교양 교과 과정의 학점 체계를 수업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재구성하는 일을 추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학교 수업은 대부분 3학점이고 1~2학점 수업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모든 3학점의 내용이 균질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사례는 싱가포르 국립대의 Modular Credit System입니다. 주별로 강의 시간,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조교의 보강 수업 시간, 학교 외부에서의 인터뷰 및 답사 시간, 도서관 등에서 정보를 찾기 위한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등을 합산해서 2.5시간=1학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인데, 이 모델과 저의 경험치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과목 수강을 위해서 총 10시간을 소비한다면 4학점 수업이겠지요?

학점 체계뿐만 아니라 교과목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평가해 좋은 과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핵심 교양은 평가를 통해 몇 개를 폐강시키기도 했는데 이를 전 과정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조교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강의 조교는 학생과 교수를 연결시키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RA, TA 등 용어는 가져왔지만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떤 교수 밑에 있느냐에 따라 한쪽은 죽어나고 한쪽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조교를 위한 지도·관리·훈련이 필요합니다. CTL에서 하는 예비 교수자 양성 프로그램, e-learning 시스템 이용법, 글쓰기 첨삭 지도법, 학생 상담 지도법과 같은 조교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조교 자격 인증서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도 주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했는데 곧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5. 그렇다면 기초교육원 원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새 교과목을 도입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학생 자율 연구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주도과 참여를 요구하는 수업들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의 자문을 받고 학생들에게 비공식적인 여론 조사를 했었는데 좋은 반응이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지만 여러 가지 활동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 보람 있지요. 사회봉사 3도 최근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참가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공부를 위해서 서구로 가는 일은 많지요. 하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서 고달픔을 익히고 국제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봉사 3은 사회봉사 1과

사회봉사 2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해외봉사 수업입니다. 봉사 경험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길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학교는 넓고 생각보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산재해 있는데 보통은 잘 몰라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들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따라줄 때 가장 기뻐요.

서울대학교의 『교양 교육 60년사』를 발간한 일도 보람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의 교양 역사를 알아야 학교를 위한 체계를 새로이 구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실제로 대학로에서 관악으로 옮겨오면서 문리대의 교양 학부 체제가 없어졌는데, 이 체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이런 논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새로운 체제에 대한 신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 원래 법대 교수님이시죠. 기초법을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법학은 ‘교양’ 과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초법의 한 분야인 법철학을 전공했어요. 법철학은 법의 기초나 법치주의, 더 나은 법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지요. 케임브리지 대학은 신입생 모두에게 법치주의를 심도 있게 가르칩니다. 법치주의가 한 사회의 뼈대이고 문화적 토대라는 인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법은 물론 인문·사회·자연의 각 전공들은 지식의 기초 인 만큼, 교양 교육의 한 축입니다. 넓은 것을 보여주어야 깊이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차 기초교육원이 확대되면서 전공과 교양의 관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학제 간 연구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여러 실험과 시도가 필요한데, 그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양교육입니다. 따라서 각 분과들은 융합을 가능하게 해 주는 교양의 축 역할을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법학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 보직을 맡으신 경험이 개인 학문 연구 활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서울 대학교 학부생들의 교양 교육을 책임지는 기초교육원 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보신 경험과 더불어, 앞으로 기초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솔직히 보직을 맡은 2년간 전공 분야에 옛날만큼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했지요. 하지만 학부 교육에 관한 일을 맡게 되면서 전공 논문 1~2개를 덜 쓴 것보다는 학생들의 학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직원이 지금보다는 시간을 조금씩 더 내서 학부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앞으로의 대학에서는 교육/연구, 교수/학생의 공고한 이분법이 훨씬 완화될 것입니다.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모두가 처음 겪는 초유의 사태들이고, 지식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수업 시간은 교수와 학생의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런 지식의 장에서는 일방적인 지식 전수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심급을 구성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들이 복잡할수록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럴수록 탄탄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뿌리는 기초 교양에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모든 분과가 교양에 발을 담가야 진정한 학제적 연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대학들의 고민은 뿌리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지금, 본직으로 돌아와 장차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를 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지 궁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서울대 법대는 로스쿨로 이행되지만, 법 역시 교양의 중요한 한 축인 만큼 학부에서 법에 관한 영역이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8. 지난 2년간 <열린지성>에 대해 아쉬웠던 점 혹은 좋았던 점을 말씀해주세요.

<열린지성>을 통해 지적인 교양과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학생 제언이나 여러 선생님들의 인터뷰가 생생하고 재미있었어요. 만족스럽습니다. 읽어본 사람은 계속 읽게 될 듯한데, 이것 역시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홍보에 신경 쓰고, 독자를 학생층으로 삼아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늘렸으면 싶네요.

박 선생님은 인터뷰 끝에 “대화에는 상대방의 이성을 활용해 정신을 고양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린 지성>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9월부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로 바쁘실 터인데,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글 : 이명지 / 사진 : 서유경